

# 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8. 9. 17.

## 금융위원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1. 「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」 의의

□ 반갑습니다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입니다.

-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**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각 연구원 관계자**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
### 가.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→ ‘미완의 개혁’

□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지 10년이 지났음

- 2008년 9월, 추석 연휴 막바지에 리먼브라더스 파산 뉴스를 접하고 분주히 움직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함
- 위기를 통해 우리는 레버리지의 무서움, 대마불사의 한계, 구조화상품의 위험성 등을 절감했었음

□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은 G20, FSB 등 논의를 토대로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왔음

- 국제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SIFI 지정, 정리제도 (RRP) 도입 등과 함께, 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및 과도한 위험추구 행태 규제(예 : 美 볼커룰) 등을 추진해 옴
- 우리도 경기대응완충자본(CCyB)을 도입하고,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요 은행 및 은행지주를 D-SIB으로 지정했음
- 그 결과 은행 부문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, 전반적인 복원력은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

\* 美 대형은행 유형보통주(TCE) 자본비율 : ('08말) 4.1% → ('17말) 8.1%

\* 국내은행 BIS기준 총자본비율 : ('08말) 12.31% → ('17말) 15.24%

-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, 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규제 개선 노력은 은행권에 치우쳐진 “미완의 개혁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
  -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
    - \* 비은행권 비중 증가 원인 : ①저금리에 따른 고수익·고위험 자산 선호, ②은행권 규제강화에 따른 리스크 수반거래의 비은행권 쏠림, ③보험·연금 규모 증가
    - \* 그림자금융(shadow banking) 추정 규모(\$): ('10년) 28조 → ('16년) 45조
  - 소수의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로 투자자산이 몰리면서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리스크가 증폭될 소지도 증가함
  - 이로 인해, 비은행 부문에 잠재적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과 평가가 잇따르고 있음
- 우리 금융시스템에서도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\*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, 비은행권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
  - \* 연평균 증가율(% 14~17년) : (은행대출) 6.4 (비은행대출) 10.6 (펀드수탁과일임계약) 11.5

#### 나.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장치 미비

- 그러나,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,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
  - 비은행 금융시장의 경우 시장참가자나 거래행위가 다양하고 특유의 리스크 증폭·전파 요인이 존재하여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
    - \*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('16.7월) : “EU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경감 수단은 충분치 않음”
    - \* BIS('18.6월) : “자본시장 거래행위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대응은 거시건전성 차원이 아닌 개별펀드 단위의 미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옴”

- 각국의 금융안정기구도 비은행권 위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
-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함
  - 돌이켜보면, 그동안 비은행 부문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,
    - 거시건전성 차원의 정교한 대응보다는 업권별 미시건전성 규제틀 하에서 임시적·부분적 대응이 주로 이루어져 왔음
  - 비은행 부문은 불투명성이 큰 만큼, 관계기관들이 사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긴요하나,
    - 아직까지 유관기관들이 함께 수시로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하는 체계는 충분치 않음
- 우리는 과거 위기 사례를 참고해 ‘외양간’을 고쳤지만, 위기는 언제든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

<b>다.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의 선제적 도입 추진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는 만만치 않은 과제이며, 아직까지 “정형화된 양식(stylized template)”이 없는 영역임
- 그러나,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거시건전성 분야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, 과감하고 정교한 제도를 다수 도입해 왔음
  -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·DTI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·운용해 오고 있으며, 내년에는 ‘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’도 도입할 예정임
  - 대외 건전성 관리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제도,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도 도입했음

- 이러한 조치들은 가계부채 증가,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으며,
  - 국제금융기구나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과를 높게 평가
- 이제 국제적으로 갓 시작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논의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은 충분
  - 정책당국은 은행 거시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고, 시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이 높음
  - 우리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들을 개발하고 각국에 모범사례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임
- 오늘 TF는 바로 우리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임
  - 비은행권<sup>발</sup>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\*은 다양한 만큼,
    - \* 개별 금융사의 취약한 미시건전성 외에, 과도한 위험추구, 상품판매·투자시 군집행동, 리스크 유발 시장구조, 업권 차원의 건전성 등에 의해서도 유발됨
  - 업권·상품·시장별로 다차원적인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고 논의의 틀을 제한하지 말고 해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임
-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이 협업하고 여러 지혜를 모아 의미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

## 2. TF의 주요 과업

□ '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'의 목표는

- ① 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고,
- ②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(management framework)를 구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해 나가는 것임

### 가. (단기)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및 대응수단 마련

□ 우선, MMF의 특정자산 쏠림, 파생결합증권, 여전사 자금조달, RP거래 유동성 등 그간 지적되어 왔던 분야들을 점검하고,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음

- ❶ MMF 편입자산의 특정자산 쏠림을 완화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발생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
- ❷ 여전사의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고, 특정업권에 대한 발행 의존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
- ❸ RP거래시 위험도에 상응하는 유동성 규제, 담보증권별로 차등화된 최소 증거금율을 제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

□ 아울러,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음

## 나. (중장기)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구축

- 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·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- 우선, 「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」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음
  - 오늘 TF가 모태가 되어 실무 레벨에서 정부, 중앙은행, 감독 기관,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면서,
  - 주기적으로 업권, 상품,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‘분석→식별→평가’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자 함
  - 기관별 스트레스테스트, 상호연계성 분석 등도 공유·논의하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음
- 또한,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(policy tools)들을 검토하고 제도화해 나가겠음
  - 미시건전성 규제들에 국한되지 않고, 경기순응성·상호연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하고 다각적인 수단\*을 검토해 나가겠음
    - \* 예시 : 특정 영업행위 제한·축소, 특정정보 공시, 위험자산·부채 한도 관리, 내부 리스크관리 강화 권고 등
  - 다만,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은 위기를 예방하는 사전적 조치 성격이 강한 만큼,
    - ‘원칙준수·예외설명(comply or explain)’ 방식을 도입하여 금융 회사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

### 3. 당부 말씀

□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외 경제금융 여건\*은 양호하지 않음

\* 글로벌 금리 정상화,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, 무역분쟁 등 리스크 상존

-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높은 개방도를 감안할 때, 대외 위험요인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파급효과는 항상 주시해야 하며,
- 우리 스스로도 리스크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키우고 금융안정 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함

□ 금번 TF가 비은행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·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개발하여

- ‘물샬틈없는 금융안정’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, 나아가 국제적인 모범사례(best practice)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함

□ 여기 계신 분들에게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개척한다는 각오로 TF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

-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리스크요인을 면밀하게 살펴온 만큼, 주도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수단을 마련해주시기 바람
- 한국은행은 그동안 쌓아온 거시건전성 분석능력을 토대로 비은행권내 시스템리스크 등을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등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
- 각 연구원에서는 비은행권 위험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,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

□ 감사합니다.